

『신민』의 개조론과 식민 모럴(Moral)의 창출 방식

우미영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교수, 현대소설 전공

banyawoo@hanmail.net

- I. 머리말
 - II. 『신민』의 개조론과 지방개량사업
 - III. 지방개량의 문화 서술 형식
 - IV. 성공담의 도덕률과 노동하는 식민 주체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6813).

I. 머리말

『新民』(1925. 5-1933. 4)은 1925년 5월 창간 당시부터 193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조선의 각 지역을 답사하고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기사화하였다. 조선 영토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답사는 1910년대부터 지속되었다. 『반도 시론』, 『개벽』, 『삼천리』의 기획이 대표적이다. 조선 전 지역 답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외양은 유사해 보이지만 잡지에 따라 양상과 의미는 다르다. 『신민』의 변별성은 ‘지방개량’이라는 용어를 통해 드러난다. 지방개량은 “조선의 지방제도 및 지방민을 각종 방법으로써 개량”한다는 목적 아래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0년대부터 제기되었으며, 1921년 6월 14일부터 2주 동안 개최된 제1회 지방강습회의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를 통해서 실시가 공식화되었다.² 전방위적 차원의 개량이라는 목적이 드러내듯 내용은 풍속개량에서 토지개량에 이를 정도로 폭넓다.³ 연원은 일본 내무성 정책에 있다. 일본의 지방개량운동은 러일전쟁 후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국가 관료가 주도한 자치정책이다. 제1회 지방개량강습회는 1909년 7월에 개최되었다.⁴ 조선의 지방개량운동을 공식화한 1921년 6월에 동경에서는 15회 강습회가 개최 중이었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1 《매일신보》, 1911년 9월 24일자.

2 이하나, 「일제강점기 ‘모범부락’ 정책과 조선농촌의 재편」, 『학림』 19집(1998), 143-144쪽.

3 이하나는 ‘지방개량’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다. “①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②사회교육의 장려를 통한 지방민의 이데올로기적 지배, ③농사개량, 근검저축과 납세의 이행을 주내용으로 하는 생산력 증진과 잉여의 수탈, ④‘모범적’인 부락·면리 및 ‘중심인물’의 양성을 통한 지방통치의 거점 확보”이다. 이하나(1998), 위의 논문, 144쪽.

4 伊勢弘志, 「『地方改良運動』の政策主体と社会背景」, 『文学研究論集』 第30号(2009. 2), pp. 165-174.

지방개량조합⁵ 혹은 지방개량 장려회를 설립하였다.⁶ 조선 총독부에서는 6인의 조선 관료를 인선하여 일본으로 시찰단을 파견하였으며⁷ 일본 내무성의 관련 인사를 조선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⁸ 조선에서는 1921년 이래 총독부 주최로 '지방개량강습회'가 꾸준히 실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지방개량운동은 1932년에 이르면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구체적 정책으로 표면화된다.⁹ 1932년 전까지를 농업진흥정책의 전사(前史)라고 한다면 창간 시기인 1925년 5월부터 1930년까지 5년 남짓 계속된 『신민』의 지방 사업 또한 그의 한 부분에 속한다. 이는 곧 『신민』의 지방 기사가 조선총독부 지방 정책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창간호에 실린 「지방개량의 자취」를 비롯하여 『신민』에 실린 일련의 지방 기사는 총독부 중심의 지방개량운동이 잡지의 차원으로 이동된 것이다. 또한 지방개량운동은 총독부의 고유 정책이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미리 실시된 정책이었고¹⁰ 일본에서의 정책은 조선 농촌 사회에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도입”되었다.¹¹ 그렇기에 『신민』 지방부 사업의 성격은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의 지방정책과 관련지을 때 분명해진다. 『신민』의 조선 답사(기)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탄생하였다.

-
- 5 동척대구출장소가 추진한 달성군 수성면 범어동 이민집단지 지방개량조합 설립 계획 및 실행 경과(《부산일보》, 1915년 10월 15일자, 1916년 1월 4일자).
 - 6 《매일신보》, 1919년 2월 13일자.
 - 7 1920년, 1921년 조선 관료의 일본 강습회 파견에 대해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8 《매일신보》, 1920년 3월 19일자.
 - 9 김민철, 『조선총독부의 촌락지배와 촌락사회의 대응: 1930-40년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 10 김중식, 「근대일본 청년단체정책의 형성과정」, 『동양사학연구』 82(2003. 3), 116쪽.
 - 11 정승진, 「근대동아시아 규율권력의 지방침투와 제국의 관변단체: 일본의 지방개량운동(1900-1918)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2집(2018); 김민철(2008), 앞의 논문, 15쪽.

『신민』의 제일 특징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신문지법으로 발행허가를 받은 유일한 잡지라는 점이다. 이에 토대한 『신민』의 관제성은 전략적으로 표출된다. 즉 기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혹은 균질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경돈은 『신민』의 문제성을 탈/비정치적 여론 구성에서 찾았다. 『신민』은 총독부 정책선전으로부터 이탈한 듯 보이는 제스처를 통해 식민지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제 잡지의 이미지를 거스르는 다른 방향의 힘이 혼종의 양상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를 위한 잡지 구성의 기본 틀이 『개벽』에 대한 견제와 대립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잡지 『신민』의 형식적 정체성은 『개벽』에서 연원한다. 이처럼 『개벽』과의 비교에 국한하면 식민지 시대 잡지로서 『신민』이 놓인 자리의 복합성이 간과된다. 일례로 그는 『신민』이 강조하는 공민의 개념이 『개벽』을 의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개벽』이 경성의 민간 지식인에 기반을 두었기에 『신민』은 그와 대별되는 지방 공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¹² 『신민』의 지방 공민 개념은 이보다 더 복잡적이다. 조선총독부 및 그와 관련된 일본 정책을 함께 고려하여야 복합적 함의에 이를 수 있다.¹³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제기 아래 『신민』에 실린 지방 관련 기사 의미 작용을 살피고자 한다. 『신민』의 탈/비정치성의 표방은 그 자체가

12 이경돈의 「신민(新民)의 신민(臣民) : 식민지의 여론시대와 관제 매체」, 『상허학보』 32(2011), 285-288쪽.

13 『신민』에 대한 또 하나의 논문으로 「잡지 『신민』에 재현된 사회주의 담론의 양상과 전략」이 있다. 여기에서는 『신민』이 “큰 틀에서 제국의 근본 입장을 견고히 피력하면서 세부적으로 조선인의 시점을 경유해 나가는 이중적 논법”을 구사하였으며 이는 “조선인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제국의 언어를 전달해야 했던 『식민』의 위치에서” 비롯된 “필연적이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권채린, 「잡지 『신민』에 재현된 사회주의 담론의 양상과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8(2018), 131쪽.

정치적이며 『신민』의 지방 사업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신민』이 창간된 1925년도는 넓게 일제의 문화정치기에 속한다. 3·1운동 이후 총독부가 표방한 문화 정치는 20년대 중반 이후 종언의 양상을 보인다.¹⁴ 문화 정치기는 실상 일제의 행정 지배가 강화되는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¹⁵ 1920년대 초반의 문화 상황은 식민지 회유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신민』의 지방 관련 기사는 일제의 조선 행정과 문화 정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이며 이를 통해 일제 문화 정치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¹⁶

구체적 고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신민』 지방개량사업의 명분에 해당하는 개조론 및 지방 관련 기사의 서술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당시 농촌 정책을 담당했던 총독부내무국 사회과에서 발행한 『우량부락조』, 『우량부락사적』과 『신민』의 지방 사업 기사는 놀라울 정도로 대칭적이다.¹⁷ 『신민』이라는 대중 잡지의 기사로서 서사화 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조선총독부 차원의 행정 문서가 『신민』의 기사를 통해 문화의 차원으로 옮겨간 것이다. III장에서는 각각의 서술 형식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짚어볼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식민지인의 생활 통제를 위해 도덕 규범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도덕’은 보편 가치의 외피를 두른, 은폐된 정치 논리이자 식민지 수탈을 합리화하는 정치적 기제이다. 일본은 3·1 운동을 거치면서 무단통치를 접고 문화 정치를 통해 식민 지배의 동의를 얻고자 했다. 『개벽』의 폐간은 이에 대한 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제의 식민 지배 전략의 재편을 알리는 사건이었다.¹⁸ 지방개량운동은

14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2005), 99-100쪽.

15 김민철(2008), 앞의 논문.

16 정근식·최경희, 「도서관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2006), 103-169쪽.

17 『우량부락조』(조선총독부내무국사회과, 1928); 『우량부락사적』(조선총독부내무국사회과, 1930).

18 한기형(2005), 앞의 논문, 99-100쪽.

지방 행정뿐 아니라 식민지인의 정신 재편을 목적으로 한 제국의 정책이다. 개조론을 체화한 『신민』의 지방 기사는 이 또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신민』의 지방 사업이 일제 혹은 조선총독부의 입장의 가시적 결과물임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고찰은 제국이 식민 지배를 위한 문화 정치 전략으로써 식민 모럴을 창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식민지인의 노동 주체화와 연결되어 있음 또한 보게 될 것이다.

II. 『신민』의 개조론과 지방개량사업

창간과 더불어 『신민』이 내세운 것은 사회개조이며 구체적 내용은 생활 개선, 사회교화, 지방개량, 농촌진흥이다. 이는 창간사에 해당하는 「신홍민족의 초발심」을 통해 제시되었다. 잡지의 편집 겸 발행인인 필자 이각중은 “위선 먹자 살고야 보자”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실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을 강조한다. 생활 문제란 곧 생계 문제이다. 이러한 강조는 타당해 보이지만 의도는 단순하지 않다. “軍資의 强請이 무슨 권위가 잇스며 일선용화의 권설이 무슨 감격이 잇슬가? 공자왈 무엇이며 맹자왈 무엇이며 웰손 왈 무엇이너 레닝 왈 무엇인가? 그는 다 살고 본 연후사이 안인가”라는 표현에서 보듯 그는 운동 혹은 이념 차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폄하한다.¹⁹ 이후 이어지는 글에서 강조되는 개인 차원의 ‘극기’에서도 사회 혹은 구조 차원의 문제는 논외이다. 『신민』인 창간된 1925년 5월에 치안유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생활 문제를 강조한 배경에는 조선 독립 운동 및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관심을 그로 돌림으로써 관심

19 이각중, 「신홍민족의 초발심」, 『신민』 창간호(1925. 5), 3쪽.

자체를 억압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는 1920년대 전반기 조선에 팽배해진 민족·사회 등에 관한 관심을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생계의 문제로 전환시키 고자 한다.

이각종의 사회개조론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하지만 내적 논리는 단순하고 구체적 방법은 애매하다. “생활을 개선하여 합리적 경제적 되게 하자. 사회교화를 성히 하여야 민중문화를 보급케 하자 지방을 개량하여 민중정치의 기본을 확립하자 농촌을 진흥하여 산업의 근체를 견고히 하자”²⁰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이는 이각종의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창간호에 실린 논설에서는 개조의 당위성만 강조할 뿐 구체적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개벽』은 이러한 『신민』의 논리 없음을 용어 사용의 문제를 들어 비판하였다. 즉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추상적 용어”,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막연한 용어”로써 “활자유회”에 불과할 뿐 실제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양상은 「신흥민족의 초발심」으로부터 4년 후의 글인 「생활개선론」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18쪽에 걸친 분량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논리의 단순성과 추상성은 창간호와 별 차이가 없다.²² 이런 점에서 『신민』의 개선론은 용어로만 존재할 뿐 실체는 없다.

개조 혹은 개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생활개선의 안목=귀중한 자각을 촉하노라」의 논자는 이를 조선(인)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한다.

그러면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외국으로 말하면 서구 대전 이후에

20 이각종(1925. 5), 위의 글, 3쪽.

21 XY生, 「現下 新聞雜誌에 對한 批判」, 『개벽』 63(1925. 11), 54-55쪽.

22 李覺鍾, 「生活改善論」, 『신민』 50(1929. 6), 2-20쪽.

국민경제가 극단으로 피폐하여 경제상 절약을 토대로 하고 예술과 과학을 주량으로 하여 혹은 주택 혹은 의복 혹은 음식 혹은 생활상 규범에 공하여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위생적으로 영양적으로 개량하되 물론 경제적 또 절약적 신조를 고수하여 개개의 경제상태를 향상 시키어 국민경제적 급지는 국가경제를 하라 하였음이 이 운동의 시초였었다. 그 이후에 전란의 창이가 너무도 심중하여서 세계적 불경기를 유치하였고 또 전세계가 무력적 전쟁을 버리고 경제적 전쟁으로 방향을 변이함에 따라 각국이 필사의 역을 다하여 차에 대응하니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한데 국민경제라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의 경제상태의 반영이오 국가의 부력은 그 국민개개의 부력의 결정이다. 그러함으로 각국이 모두 스스로 견고한 자각 하에서 각기 자국 국민의 경제상태를 향상시키려고 힘써 선전하며 사회의 여론을 야기하여 국민개개의 각오를 유기하여서 국민개개의 생활상태를 개선하기에 역도 불여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 성행하는 이 운동도 이러한 지도 하에서 일어난 각성의 산물이다.

이 생활개선의 운동으로 말하면 그 국민의 교육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고 그 국가의 문화가 상당히 개발되어 있고 겸하여 과학적 지식과 시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전에는 완전한 이상적 생활개선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화정도가 이만큼 발달되기 전에는 우선 각개인의 자각을 각성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운동의 결실을 완미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

우리의 경제 상태는 일본이나 우는 외국의 그것과 갓지 안타. 우리의 문화는 남에게 비교할 때에 赤面할 지위에 있다. 생활개선을 한다고 남과 갓치 주택을 문화주택의 양관으로 개축하고 음식을 과학적으로 영양가치의 표준으로 선택하고 의복을 능률본위로 양복으로 변복하는 등은 별안간 개량하랴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아직도 도정이 멀다. 이것을 무리로 하는 날에는 그 날은 불 일 다 본 날이다. 우리는 현하 생태를 자고하야 초막사리도 만족하여야겠고 피죽조밥도 만족하여야 하겠고 석새미녕고의도 만족하여야 하겠다. 다만

우리는 제각급 시간을 앗기어 일을 하는 동시에 우리의 경제상태에 양열을 끼치는 허례허색의 습관을 제일착으로 타파하여야 하겠다. 일을 하여 먹을 것을 벌고 허례허식으로 기인하는 낭비궤비를 절약하여 우리의 민족을 함양할 진대 우리의 생활도 의의가 깃허가갓고 우리 민족의 장래도 결코 비관할 것이 아니갓다. 그리만 되면 우리의 생활도 장래에는 문화적이오 과학적이오 위생적이오 영양적이오 규율적으로 되어 갈 것은 명백의 이치인 줄노 안다. 다만 현재상태로는 선결문제가 서상한 바와 갓다 함이다. 만일 그렇치 아니하면 우리 민중은 도저히 소생활 여망이 없다고 자신하는 바이다.²³

위 글에서는 경제·예술·과학·문화 등에 걸친 개선으로 추상적이거나 생활개선을 정의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개선은 조선의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 생활개선을 하기 전 “일을 하여 먹을 것을 벌”어아 하는 것이 조선(인)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최창현에 이르면 생활개선론은 차후의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시간을 아끼어 일을 하는” 것만이 조선인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이러한 생활개선론에 따라 조선인은 일하는 자 즉 노동하는 식민주체로 구조된다.

「신민에 與함」은 생활개선의 구체적 대상을 명시한다. 필자는 당시 총독부 내무국장이었던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²⁴이다. 그는 1908년 총독부 서기관으로 조선에 온 이래 서기관, 참사관, 사무관 및 중추원 서기관장을 거쳐 1919년 내무국장이 되었으며 1925년 6월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23 최창현, 「생활개선의 안목=귀중한 자각을 촉하노라」, 『신민』 창간호(1925. 5), 30-32쪽.

24 조선사편수회(조선사의 편찬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총독부의 총독 직할 기관) 위원, 오쓰카 쓰네사부로 위원 취임 1924년 12월 12일-퇴임 1925년 6월 8일(취임 당시 중추원 서기관장) 冲繩縣 警視에서 자리를 옮겨 統監府 書記官, 總督府 書記官, 參事官, 事務官을 거쳐 中樞院 書記官長이 되고 內務局長으로 승진하였으며, 1919년에서 1925년까지 局長으로서 總督府 내무행정의 중책을 맡았으며, 總督府 施政史上 중요한 공로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인물자료 참조.

17년 4개월 동안 총독부 관료로서 조선통치에 가담하였다.²⁵ 이 글이 발표된 직후 일본 내무대신 비서관장으로 임명되어 동경으로 돌아갈 때까지 6년 동안 내무국장을 지냈다. 이 글은 창간 측사이지만 또 한편의 창간사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잡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징하게 제시한다. 그 또한 사회개조를 강조한다. 이각종이 생활개선, 사회교화, 지방개량, 농촌진흥을 통해 이를 소개했다면 오쓰카는 “사회개조는 국가적 시설보다도寧히 지방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각성에 의함이 첩경이고 또 유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회개조의 대상이 지방단체와 개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²⁶ 그는 급격한 개혁이나 혁명 행위가 아닌 실질 차원의 온건한 개선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염두에 둔 표현이며 구체적으로는 자치 개선론이다. 지방 단체와 개인을 강조했지만 실행자는 개인이기에 논의의 초점은 개인의 각성과 개조에 있다. 그는 품성, 체력, 지식, 사회책무 및 직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실제 총독부에서는 지방공공단체를 개설하고 구체적인 생활 개선 방침을 제시하여 개인을 관리하였다.

이 때의 개인이란 누구인가? 「신민에 與함」에서 강조한 지방의 공공단체와 개인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 지방 ‘공민’이다.

현하 조선의 사회는 대부분은 아즉도 公人이라는 계급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뉘가 무어라 하여도 이들이 중견이며 지방의 책임자이다. 혹은 지방의원으로 道政郡治에 參劃하며 혹은 문묘에 봉직하고 향교에 掌議하며 학무에 委屬되야 문묘에 진력하며 농업, 금융, 기타 지방산업단체에 종사하여 직접간접으로

25 「今日の朝鮮人は世界的地位로 向上, 朝鮮을 去함에 際하여」, 《매일신보》, 1925년 6월 17일자.

26 大塚常三郎, 「신민에 與함」, 『신민』 창간호(1925. 5), 52쪽.

지방의 개발에 蠱弊하는 모든 공민들은 그의 남모르는 고심과 공헌이 불소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김훈 경의를 표코저 한다.

만약 지방 공민이 일층 더 현대를 이해하고 민중의식이 철저하여 각각 그 책임을 다할진대 조선은 여러 방면으로 불소한 향상을 볼 것이니 「신민」은 須히 공민의 友로 그 지방개발상 유력한 후원자가 되기 간절하노니 공민도 이 신민을 인하여 만흔 편익을 득할 것을 확신코저 한다.²⁷

조선시대에 공민은 “국역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을 갖춘 자영농민을 지칭하는 양민”을 의미했다.²⁸ 위 글에서 공민의 개념은 이와 다르다. 공민은 1929년 보통학교 규정에서 학교 교육의 목표로서 ‘공민으로서의 자질 습득’을 강조하고 1931년에 실업학교, 1932년에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 교과목으로 ‘공민’이 개설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적 용어로 자리 잡았다.²⁹ 그 이전까지는 총독부의 지방제도개정나 일본의 공민교육과 공민권 소식 기사에서 간간히 사용되는 정도였다.³⁰ 『신민』 창간기 즉 위 글이 쓰여질 시기 ‘공민’은 조선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었다. 필자는 이를 “道政郡台 參劃, 문묘 봉직, 향교 掌議, 학무 委囑, 지방산업단체 종사하면서 직접간접으로 지방의 개발에 蠱弊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양민은 아니며 일본의 정치사상과 지방자치제도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번역어 ‘공민’으로서 참정권을 가진 국민 또는 지방민에 가까운 개념이다.³¹ 더 살펴보면 망양생이 말하는 공민은 이와도 동일하지 않다. 근대 개념으로서 ‘공민’에서 중요한 것은 참정권 즉 정치 참여 의식과

27 망양생, 「公民의 벗(友)으로」, 『신민』 창간호(1925. 5), 43쪽.

28 김성우, 『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역사비평사, 2001), 25-26쪽.

29 김성우(2001), 위의 책, 230-231쪽.

30 《매일신보》는 1920년 8월 11일에서 23일까지 10회에 걸쳐 ‘지방자치제의 전제되는 諮問機關의 해설’을 실었는데, 부제에 ‘지방 공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1 차조일, 「번역어 ‘공민’과 사회과 교육」, 『시민교육연구』 50(3)(2018), 228-230쪽.

권리이다. 일본에서는 1924년 ‘실업보습학교 공민과 교수요강’의 공포와 더불어 ‘공민과’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고³² 이를 일반 학교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매일신보》 사설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공민적 지식과 관념”은 “진정한 선거권의 의의”를 인지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 차원의 정치 의식이다.³³ 공민의 권리로써 선거권이 가장 중요하며 공민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실시되는 공민과 관련한 내용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 시기 조선에 전해지는 일본 내 공민 관련 논의는 공민‘권’이 핵심이다. 지방제도개정안이나 부인 참정권 논의가 대표적 예이다.³⁴

「公民의 벗(友)으로」에서는 이와 같은 공민권의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민의 범주에 지방 인사를 모두 포괄하였지만 정치 주체로서 그들의 의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일본인과 관련한 공민은 정치 주체의 측면이, 조선인과 관련된 공민은 노동하는 식민주체의 측면이 부각된다. 식민의 상황에서 정치 주권 의식을 전제한 공민 개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³⁵ 이런 까닭에 이에 대한 논의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³⁶

일련의 논설이 『신민』 개조론의 명분을 보여준다면, 실제 지방을 시찰하여 보고한 지방 개량 실적 보고기, 지방 장관 및 답사 여행기는 개조론의 실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 글의 시작점에

32 김중식, 「공민교육을 통한 근대 일본 국민상의 모색」, 『동양사학연구』 114(2011), 256쪽.

33 「소위 공민교육에 대하여」, 《매일신보》, 1925년 7월 6일자.

34 「지방제도개정안, 정부방침은 공민권 확장」, 《매일신보》, 1921년 2월 25일자; 「부인공민권 부여 건의안 제출하다」, 《부산일보》, 1925년 3월 3일자 등.

35 정상호에 따르면 식민 통치 하에서 자치와 참정권의 진정한 의미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총독부 정책의 부산물로서 식민 권력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호명된 소수 계층에 한정된 개념일 수밖에 없다. 정상호, 「동아시아 공민(公民) 개념의 비교 연구」, 『동북아연구』 27(1)(2012), 10쪽.

36 「가장 충실한 공민이 되는 것을 극히 말하며」, 《중외일보》, 1928년 3월 14일자.

「지방개량의 자취-생활개선실행에 취하여」가 있다. 주지해야 할 바는 이 글이 창간호를 위해 쓴 글이 아니라 생활개선실행회의 이름으로 1924년 12월에 이미 발표된 글이라는 점이다. 생활개선실행회는 의식주 및 의례에 걸친 조선인의 생활 전반을 개선시키겠다는 목적 아래 조선총독부 사회과의 발기로 설립된 모임이다. 생활개선실행회는 총독부 사회과 소속이며 사회과장을 간사로 위촉하였다. 이 글이 『신민』 창간호에 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민』의 구체적인 지침 또한 여기에 있음이다. 이는 창간호에 실린 일련의 논설이 추상과 당위로 일관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각종의 『신민』은 실상 총독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잡지이기에 개선론을 내세우긴 했지만 자신의 독자논리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창간호의 논설은 『신민』의 자생적 문제의식이 아니라 총독부의 지방개량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적 명분이었다.

이를 통해 『신민』의 지방부 사업과 조선총독부의 지방 정책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민』의 지방부에서 실시한 시찰(기)이나 답사(기)는 총독부에서 실시한 지방개량 동리나 단체 등에 대한 조사가 주 대상이었다. “총독부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모범부락을 거점으로 식민농정을 일반 촌락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품종개량과 농사개량을 비롯하여 지방개량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던 동리나 단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³⁷는 논의를 참조할 때 『신민』의 지방부 사업은 총독부의 지방정책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이를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개량 실적 보고기, 지방 장관 및 답사 여행기 등은 그 실적을 잡지의 차원에서 대중에게 전달했다. 이런 까닭에 『신민』 지방 개량 사업의 구체적 수행물은 이들 지방 관련 기사이다.

37 김민철(2008), 앞의 논문, 16-18쪽.

『신민』의 개조론이 총독부 지방개량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결과물이 일련의 지방개량 보고 실적기 혹은 답사기라면, 『신민』 개조론의 핵심은 후자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총독부의 사업과 잡지 『신민』의 결과물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지방개량의 문화 서술 형식

1. 받아쓰기: 관제문서와 『신민』의 지방 기사

『신민』의 지방 관련 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지방개량의 자취’와 ‘지방회보’를 포함한 지방개량 실적 보고기이다. 둘째는 각 지역의 성공가나 지주를 탐방하여 소개한 지방 인물 기사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내용을 모두 포괄한 지방부장 류순근의 답사기이다. 형식으로 보면 류순근의 답사기는 『신민』의 지방 기사의 형식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즉 「지방개량의 자취」, 「지방회보」가 지방 개량의 실적을, 윤용규·홍인택의 지방순회기는 지방 인물 소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류순근의 답사기 한편 한편은 이들 내용을 모두 포괄한다.

창간호의 ‘지방개량의 자취’에는 「생활개선실행에 취하여」를 비롯하여 공주의 장학재단, 경기도 시흥 북면 도림리 교풍부업계, 고양군 수인면 전풍리 전담청년회, 여주군 여주청년회 등 지방자체단체의 소식을 실었다. 총독부의 생활개선 운동은 도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³⁸ 생활

38 김은주, 「1930년대 조선의 농촌 생활개선사업과 ‘국민화’작업」, 『한국사론』 58집 (2012), 158쪽.

개선실행회의 지침과 규약인 「생활개선실행에 취하여」가 『신민』 지방 개량 사업의 첫 기사로 소개되었다는 것은 이 운동이 지방 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으로 확대 혹은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회보」에는 조선 13도 각 지역의 산업과 자치단체 현황, 표창 사항 등을 담았다. 지방개량의 실적과 관련된 지방의 관 혹은 자치 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지방개량 실적 보고는 5월 창간호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매호마다 빠지지 않고 실렸다. 11월호에 류순근의 글이 처음으로 실리고 이후부터 이 두 기사가 빠진 것으로 보아 그의 답사기가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신민』 지방 기사의 내용 및 형식과 유사한 예를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에서 발행한 『우량부락조』(1928. 3)와 『우량부락사적』(1930. 9)에서 찾을 수 있다. 『우량부락조』는 범례 첫 번째 항목에서 “본편은 각도에서 부락 또는 지방개량 단체 중 지방교화, 농촌진흥에 공헌한 성적이 우량하여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의 事績概況에 대하여 도의 조사보고를 모아 기록하고, 일반의 참고에 자료가 될 만한 것이다”³⁹와 같이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13도의 5개 우량부락, 22개의 지방개량단체 및 각각의 대표자 또는 중심인물을 소개하였다. 이는 『신민』의 지방 관련 기사의 대상과 동일하다.

첫 번째로 경기도의 경우 진위군 오성면 부인회가 소개되었는데, 내용 구성과 다음과 같다.⁴⁰

- ① 주소지
- ② 부락호수
- ③ 대표자 또는 중심인물: 회장 김대경 46세

39 『우량부락조』(조선총독부내무국사회과, 1928. 3), 1쪽.

40 조선총독부내무국사회과(1928), 위의 책, 1-6쪽 참고.

④ 시설 사항의 연혁 및 성적-製叭, 양계, 양잠, 저축

⑤ 계획 중인 사업

다른 단체를 소개하는 방식도 이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위 다섯 가지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본재산, 시설사항의 소요 경비 및 각 회의 규약이 추가되기도 한다. 『우량부락사적』 또한 각 지방 부락 또는 지방개량단체 중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26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총독부에서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문서로는 「우량부락及단체」, 『조선사회사업』, 『우량부락と 독농가』 등이 있다. 『우량부락조』를 비롯한 총독부 정책 관련 문서와 『신민』의 지방 기사는 내용 구성 및 서술 방식이 유사하다.⁴¹ 이들의 유사성은 『신민』의 지방 기사가 총독부의 지방정책을 충실히 따르면서 잡지의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술 방식의 유사성은 서술 정신의 동일성에서 비롯되며 이때의 서술 정신은 곧 총독부의 지방정책이 지향하는 바와 같은 선상에 있다. 이는 탈식민주의 글쓰기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되받아쓰기 혹은 다시쓰기(Writing Back)를 한 것과 정 반대의 경우이다. 『신민』은 '생계'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회 개선론을 주장했지만 관점은 총독부 즉 제국의 논리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총독부 문서 형식을 그대로 받아 쓴 『신민』의 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1920년대 중후반 신문지법의 허가를 받은 『신민』의 관제성은 지방 기사를 통한 구조적 수행에서 발현되었다. 이는 개선론의 문제가 아닌 『신민』이 놓인 구조 차원의 위치에서

41 『우량부락사적』(조선총독부내무국사회과, 1930.9), 총독부 발행은 아니지만 「우량부락及단체」(『조선사회사업』 4(조선사회사협회, 1924)), 「우량부락及단체」(『조선사회사업』 4(조선사회사협회, 1926)), 『우량부락と 독농가』(제1집(조선농회, 1931.3.))의 구성도 이와 유사하다.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 및 양상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오성면 부인회 회장 김대경 47세

당 지방 생장. 명치 15년 3월 경성중앙학교 졸업 대정4년 6월부터 대정5년 10월까지 토지조사국 기수로 근무. 대정51년 오성면장으로 임명되어 금일에 이름. 대정 12년 4월 진위군 주취 내지시찰단원에 선발되어 내지 우량정촌 시찰. 특히 내지 부인활동에 감격하여 조선에 돌아와서 곧바로 동년 5월 23일 일본단체를 조직 부인활동을 장려하기에 이른다. 대정 13년 다시 경기도 주취 내지시찰단원에 선발되어 두루 재니 각지의 우량정촌과 교화단체를 시찰하고 돌아와 더욱 부인지도에 노력함.⁴²

교풍부장 오태선은 대정 4년 교풍조합 창립 시 발기인으로 동 5년 진흥회로 개칭시 該직에 취하여 爾來 성상을 시종이 여일히 종사할 뿐 아니라 풍속개량 예의 조장 등 공적이 비상하였으므로 대정 12년에 도지사로 금일봉의 표창이 유하였는데 그 상을 회에 擧하였다 합니다. 얼마나 지방을 위하여 노력이 많은 이가 아닌가 갈산리의 금일은 실로 양씨(회장과 더불어)의 공이라 한다.⁴³

첫 번째 예문은 『우량부락조』에 실린 경기도 진위군 오성면 부인회 대표자 김대경에 대한 소개이다. 두 번째 예문은 『신민』에 실린 잡지 교풍회 인물 소개이다. 자치 활동과 관련된 이력, 표창 사항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였다. 『우량부락조』에는 ‘대표자 또는 중심인물’이라는 항목을 두고 관련

42 『우량부락조』, 1-2쪽.

43 「지방개량의 자취」, 『신민』 3(1925. 7), 61쪽; 『우량부락조』, 46쪽에서도 동일인물을 소개하였다. 갈산리진흥회 대표자 또는 중심인물: 회장 오태선 44세/대정 5년 12월 동회 풍교부장 취임/대정 14년 12월 회장 취임

인물을 소개하며 이들의 활동을 치하하였다. 『신민』의 인물 소개기는 자선가, 성공한 실업가, 지주 탐사 및 순방기 등 별도의 하위 유형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 경우에는 총독부 문서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면서도 잡지가 추구하는 바를 따르면서 다양하게 변주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서술 원칙은 『우량부락조』의 범례에서 찾을 수 있다. “사무적이고 무미건조”하여 “정조상제”하지 못하고 “체재의 통일이 부족”하더라도 “도의 보고 그대로 기록하려 노력하여 삭제를 피한 것은 사적의 진상을 알리”는데 있음을 밝혔다.⁴⁴ 『우량부락사적』의 서문에서는 이를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농촌의 진흥, 민풍의 개선에 관하여서는 시정 이래 특히 유의하여 본부 도군도 등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지도에 당케하는 외에 수시 강습강화회 혹은 사회교화에 관한 활동사진회를 개최하며 일면 최근에 있어서는 소농에 대한 소액생업자금대부의 길을 열어서 근로정신을 고무하며 생업을 권유하여 폐풍을 타개하고 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며 다시(갱히) 성적우량한 부락 또는 지방개량단체에 관하여서는 조성금을 교부하고 일층 그 발달을 촉진함에 노력하는 외에 표창 또는 활동사진에 촬영하여 타에 모범을 보이는 등 종종 방책을 강구하는 중인데 최근 점차 일반에게 이해를 주어 자각시켜온 바 그 사적 중에 상당히 가관할만한 것이 각 지방에서 속출하게 되었다.

본편은 각 지방에 있는 부락 또는 지방개량단체 중 특히 그 성적이 현저하고 타에 모범을 보일만한 것 이삼을 선정하여 그 사적의 보고를 黴하고 이를 모아 널리 일반에게 소개하며 아울러 이러한 종류의 방면에 참고를 만들기 위하여 이에 上梓한 것이다. 기술이 대개 통일을 결하고 精粗相齊치 못한 것이

44 『우량부락조』, 범례.

있지만 극력 침삭을 피하고 도지사의 보고 그대로 모아 사적의 진상을 소개코저 한다.

더욱 본편에 수록된 것 이외에 이와 같은 성적을 거두는 중에 있는 자 많디함은 물론이지만 輻輳를 피하기 위하여 수를 제한한 것이니 다른 것은 시기를 다시 하여 소개코저 하는 것이다.⁴⁵

위 예문에 따르면 총독부, 도군 등이 농촌에 직원을 파견하여 강습강화회, 활동사진회를 개최하고 성적 우량한 부락 또는 지방개량단체에 관해 조성금을 교부하고 표창 등을 했다. 이들 직원의 활동은 『신민』 지방 기자의 임무이기도 했다. 특히 “각 지방에 있는 부락 또는 지방개량단체 중 특히 그 성적이 현저하고 타에 모범을 보일만한 것 이삼을 선정하여 그 사적의 보고를 徵하고 이를 모아 널리 일반에게 소개하며 아울러 이러한 종류의 방면에 참고를 만들기 위하여 이에 上梓한 것”이라는 『우량부락사적』에 관한 소개는 『신민』 지방기사에 대한 소개에 다름 아니다. 『우량부락사적』의 서술 원칙은 『신민』 지방 기사의 원칙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2. 반복과 전언: 내부주체의 발화 방식과 류순근의 답사기

『신민』의 지방 기사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류순근의 답사기이다. 류순근⁴⁶은 1925년 11월의 『南行雜觀(제1신)』을 시작으로 1930년 2월

45 『우량부락사적』 서언, 조선총독부내무국사회과(1930. 9), 1쪽.

46 류순근(柳順根)은 인천 화평리(지금의 화평동)를 본가로 두었으며, 1925년 7월 창간된 종합지 『신동』의 기자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7월에서 10월까지 신통사 기자로 있다가 신민사로 옮겼으며 30년 7월 퇴사할 때까지 5년 남짓한 기간을 『신민』 지방부 기자로 활동했다. 퇴사 후 1931년 이후 잠시 친일 단체인 대동동지회의 기관지인 『대동신보』의 사회부장을 지냈다. 1935년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인천시사연구회 주간인 이름으로 농촌진흥, 전시신체제, 징병제실시 등

의 「南行千里」에 이르기까지 4년여 기간 동안 23편 이상의 답사기를 『신민』에 실었다.⁴⁷ 확인할 수 있는 원고만 헤아리면 그 양은 『신민』 판본으로 110쪽 가량에 이른다. 이는 25년 10월 5일 인천역에서 출발한 류순근이 조선 전역 순회의 결과를 다섯 차례에 걸쳐 정리한 기록이다.

구체적 논의에 앞서 류순근의 답사 일정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류순근의 답사 일정

구분	지역	답사 일정	답사기
1차 1925. 10-1927	경기-공주 (충남)	1925년 10월 5일 인천역 출발-수원-공주	「南行雜觀(제1신)」, 1925. 11.
	전북 전남	1926년 봄 전남 1개월 여 순회 김제-광주	「南鮮雜觀」1926. 4. 「남선인물잡관」, 1926. 5.
	경남	경남 순회 50여 일: 하동-진주-함양-진주-사천-삼천포-통영-부산-동래	「第三信」, 1926. 7.
	경북	5월8일 밀양-대구-선산, 5월25일 상주-예천-봉화-군위	「慶北雜觀(제4신)」, 1926. 8.
		청송-영양-밀양-강구항-포항-경주	「慶北雜觀(제5신)」, 1926. 9.
	충남	공주-온양-아산-홍성-보령-서산	「忠南雜觀(第六信)」, 1926. 10.
	함경남북도	1927년 함흥-원산	「북선별견」, 1927. 3.
개성 평안남도	개성-평양-진남포	「開城, 平壤, 鎮南浦行」, 1927. 10.	
2차 1928. 4-	경남	1928년 4월 경남순회 10일 새벽 출발 인천-영동-김천	「영남답사기」, 1928. 5.

을 주제로 한 시국 강연으로 전국을 순회하였으며 1941년에는 류순태랑으로 창씨 개명하였다. 기자로 활동하기 전 1924년도에는 인천노동동맹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25년 5월에는 동경에서 발행한 잡지 『사상운동』의 영업지점인 사상운동사 인천지국을 경영하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은 《시대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등의 근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47 미확인 12호까지 포함하면 답사기가 더 있으리라 짐작된다.

		대구-청도-부산-동래-마산-통영-진주-산청-함양-통영-26일 거창	
1928. 10.	경남 경북 충남	5월 거창-귀경-2일 밀양-창녕-대구-밀양-대구-영천-상주-예천-봉화-12일 예천-문경점촌-대전-공주-아산-예산-서산-당진	「南鮮踏查記」, 1928. 6.
	평안남북도	평양-진남포-신의주-의주-철산-선천-정주-귀성-태천-박천-안주-평원	「西鮮踏查記」, 1928. 9.
	함경남북도	인천-함흥-성진-나남-청진-회령-길주-단천-북청-영흥-고원-덕원-원산	「北鮮旅行記」, 1928. 10.
	전남	10월 6일 오전 경성역 출발-영암-해남-목포-무안-목포-19일 함평군정	「湖南踏查記-칠백리잡관」, 1928. 11.
	(호남-근기)	호남-근기	「湖南近畿踏查記」(원문확인불가), 1928. 12.
3차 1928. 11- 1929. 4.	경기 경남 경북	1928년 11월 6일 장호원-이천-청도-부산-12월6일 동래-부산출발 대구-영덕-12월13일 영덕 출발-영양 거쳐 귀성	「嶺南踏查記-부 근기주유기의 속」, 1929. 1.
	(경성)	1929년 남선	「南鮮踏破記」(원문확인불가), 1929. 2.
	(황해)	해서	「海西踏破記」(원문확인불가), 1929. 4.
4차 1929. 4- 1929. 12.	경북 인천	1929년 4월 4일 인천-대구 연관도착-경산-청도군청-밀양-8일 울산 *인천(부 인천개관)	「嶺南旅行記」, 1929.
	충남 전북 전남	공주-논산강경-이리-전남 광주-광주군모범촌악두암리-담양군-봉안리-4월28일 월봉리-장성-영광	「湖南踏查記」, 1929. 8.
	개성	개성	「개성답사기」, 1929. 11.
	(함경)	북선	「北鮮旅行記」(원문확인불가), 1929. 12.
5차 1930. 2.	경남 경북 경기	1930년 경성-밀양-밀양 군수면담-밀양추자주식회사-표충사-경산-대구-영천-경주-울산-상주-문경-예천-영주-봉화-안성-이천-수원-인천	「南行千里」, 1930. 2.
		퇴사	

그의 답사기는 경성을 제외한 경기·충남·전남·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의 조선 전역에 걸쳐 있다. 경기도와 충북 답사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들 지역은 경상도와 전라도 여정의 경유지로서 경상-전라 답사기에 포함되어 기술되기도 하고 강연을 위해 찾기도 했다.⁴⁸ 강원도와 제주도는 답사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의 지방행에는 농촌사정조사와 자료 채집뿐만 아니라 잡지 광고와 영업을 위한 출장 및 지방 강연의 목적도 있었다. 답사기로 드러나지 않은 영업과 강연을 위한 지방 방문까지 포함하면⁴⁹ 그가 전국의 각 지역을 답사하고 시찰한 횟수는 표에서 편의적으로 나는 5회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엄밀하게 보면 그의 답사에 전국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 5회의 경로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 답사 지역이 일부에 편중되고, 남쪽으로는 대구, 밀양, 부산, 북쪽으로는 개성, 평양, 개성, 함흥, 원산 등을 중심으로 노선이 중복된다. 이들 지역은 각 지역의 중심 철도역에서 출발하여 방문한 곳으로서 주로 총독부 정책 실행의 우수 사례 지역에 속한다. 이렇듯 그의 답사(기)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색이나 발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알려진 곳 즉 총독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곳이나 인물을 찾아 이미 알려진 평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답사의 성격은 답사자의 성격 또한 결정한다. 즉 류순근은 자신의 눈으로 대상을 직접 보고 듣는 자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중간자이다. 그가 만나야 할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는 대상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자이다. 류순근이 소개하는 바는 『신민』이나 기자 개인이 찾아낸 내용이 아닌 것이다. 일례로 『慶北雜觀(제4신)』에 소개된 ‘전산의 박태훈씨’의 경우를 보자. 그에 대해서는 《매일신보》 1926년 4월 22일자 ‘전조선

48 《매일신보》, 1927년 5월 25일자.

49 《매일신보》, 1925년 12월 6일자, 1926년 9월 23일자, 1927년 5월 25일자, 1927년 10월 5일자, 1927년 10월 6일자; 《동아일보》, 1926년 9월 20일자.

모범면 순례(32)에 '솔선궁행하여 모범을 시하는 유풍력의 선각자 선산군 옥성면장 박태훈씨의 공로'라는 제목 아래 이미 소개되었다.⁵⁰ 《매일신보》의 기사와 류순근의 답사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류순근은 답사(기)를 통틀어 조선의 문제에 대해 묻는 자이며, 그가 들은 답변의 내용은 그대로 답사기가 된다.

무르시니 말씀이지 본 조합이 창설된 지는 대정 육년 시월 5일입니다. 설립 이래 조합원 일동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만하게라도 되어오는 것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바요 경상북도의 산미가 연년 이백삼사십만 석이 되는 그만큼 본 조합은 앞으로 유망합니다만 생산 검사령이 발령 안되어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의 생산 검사령이 실행되고 안 됨에 조합경제계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미가 본질상으로 보아 일본 내지의 미만 못지않은데 건조가 부족하여 약간의 토사혼입된 이것을 이유로 내국미와 같이 동등의 취급을 받고 시매를 싼케 되며 결국 조선농민의 손실이 되고 마니 필할 이상의 농민을 유한 조선의 손해가 그 얼마이겠습니까. 민도가 열리지 못한 오늘날 조선에서 생산조합령을 실행한다하면 아직 농민에게 고통을 줄뿐이며 양호한 성적을 거키가 극난하다는 평론자도 있을지 모르나 건조, 조제, 포장 삼자에 우선 한하여 무료로 농민고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면 결코 실패에 돌아갈 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⁵¹

위 예문은 류순근이 묻고 대구곡물조합 大平 이사가 답한 내용이다. 류순근의 답사기 자체가 총독부의 문서를 받아썼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는 받아쓰는 자이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답사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청도 군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는 수야 서무주인의 말을 받아 적었고,⁵²

50 《매일신보》, 1926년 4월 22일자.

51 「영남답사기」, 『신민』 37(1928. 5), 62쪽.

52 「嶺南踏査記-부 근기주유기의 속」, 『신민』 45(1929. 1), 153쪽.

대구산십 제사회사를 방문했을 때에도 신태씨의 말을 받아 적었다.⁵³ 이름으로 보건대 대평, 신태, 수야는 일본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방 정책을 담당하는 군수나 면장이거나 지역 자치단체 담당자나 지역 유지를 만날 때도 그는 질문하는 자이자 받아적는 자이다. 이처럼 류순근의 답사기는 그들에게 전해들은 바를 그대로 받아 적은 전언 그 자체이다.

조선 농촌의 사정 조사와 취재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의 답사 목적 또한 지방개발 사업의 우수 사례 소개에 있다. 첫 번째 답사기인 「남해잡관-제일신」은 공주만을 목적지로 한 답사기이다. 여로와 내용은 단출하지만 류순근의 답사기의 형식적 특징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 글은 먼저 여로 상의 에피소드와 경관에 대한 소회로 시작된다. 특히 수원 화성과 공주 쌍수산성과 같은 역사적 장소를 지날 때에는 조선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가 대비된다. 이어 공주에서 취재한 세 가지 주제를 약술한다. 당시 공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도청 이전 문제’, 마무리 단계에 이른 장학회재단 설립 문제, 공주의 독지가 김윤환 소개가 그에 해당한다. 당시 공주에서는 도청 이전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그림자에 놀란 헛소리”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당국자의 진중한 조사 고려”에 맡기자는 것, 장학회 재단의 필요성과 이 사업이 반아(樂阿) 충남 도지사의 제안임과 동시에 ‘도내 인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당시 공주의 명망가인 김윤환의 자선 행위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사진 첨부로 글은 마무리된다. 「남해잡관-제일신」은 여로 혹은 방문 지역에 대한 감회, 지역 주요 현안, 자치단체 및 인물 소개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는 류순근의 답사기의 기본 요소이자 구성방식이다. 좀 더 길어지면 ‘여로의 감회와 에피소드, 지역의 연혁 개관, 지역 단체 -지역 관청과 사업체 혹은 자치단체-

53 위의 글(1929), 158쪽.

소개 혹은 방문, 인물 소개 혹은 방문 기록'을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는 『신민』에 실린 다른 지방 기사인 실적 보고기나 인물 소개기와 마찬가지로 관제문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변주의 폭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의 다른 답사기에서도 이 틀은 반복된다.

류순근의 답사기 가운데에는 경상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통해 서술 방식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표는 그 가운데 1차 경상남북도 답사기를 정리한 것이다.

표2-류순근의 경상남북도 1차 답사기

답사기	여로의 감상과 에피소드	연혁	지역자치단체/명승지	인물
「第三信」, 1926.7	진주와 삼천포로 가는 여정 하동, 통영 감회	의령의 사정	부산의 사회사업 개발 통도사 소개	삼천포 장응상씨 소개 하동군수 백남일씨 방문 하동 유력가와외의 만남 동래군수 김한식씨 방문 의령유지가 공손목 소개
「慶北雜觀(제4신)」, 1926. 8.	밀양 출발 대구행 여정	대구의 연혁 및 전도 상주의 사정 문경 연혁 예천 연혁 봉화 연혁 군위 연혁	달성공원, 동화사 소개 제사회사설립활동 문경, 예천, 봉화 명승고적 소개	선산의 박태훈씨 소개
「慶北雜觀(제5신)」, 1926. 9.		청송의 현재 영양 연혁	조조대 소개 경주 명승지 소개	영양 순사부장 소야 만남

위 표에서 보듯 경상도 답사기의 구성 방식도 「남행잡관-제일신」과 차이가 없다. 여로의 감상이나 에피소드가 추가되기도 하지만 이는 양적으로 매우 적으며 곧바로 해당 지역의 연혁에 대한 기술이 이어진다. 이렇듯 큰 틀에서는 총독부 관제 문서 혹은 『신민』의 여타 지방 기사와 차이가 없지만 그와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 그는 답사의 여정과 그로부터

비롯된 감회를 다양하게 기술하였다. 이는 건조한 관제문서나 단순한 실적 보고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답사자 개인의 감상이다. 중간 전달자 류순근의 개인 감상에는 관제 문서나 보고서의 단순한 정보를 넘어선 답사자 개인의 인식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친 제국적 조선인이 어떤 식으로 조선을 기술하고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 즉 친 제국 잡지의 지방부장인 류순근이 제국-식민의 구조 속에서 조선을 기술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류순근의 답사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지역은 영남 그 중에서도 대구와 밀양이다. 특히 대구는 답사기를 통해 볼 때 류순근의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이는 대구와 밀양이 경성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닿는 지점이기도 하고, 경북과 경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답사 2차 시기부터 그는 지역 인사들과 친분을 쌓을 정도로 유대를 갖고 또 방문한 곳을 재차 방문한다. 그는 1차에서 5차 대구 방문 동안 매번 일본인에 의해 잠식되어 가는 대구에 대해 비애를 드러낸다. “인류사회에 사람이 얼마라도 살아가는 것이야 조흔 현상이라 하겠으나 주객이 정반대로 우리들이 먹고 살어 모든 좋은 기관을 여지없이 빼앗겨가는 것을 볼 때 비관치 않을 수 없다.”⁵⁴라든가 “일년 일차식 와서 보는 나의 귀에 들리는 소리 누가 망했느니 누가 파산되었느니 이것뿐이며 뵈느니 들어가는 구걸인이다. 몇째 안 가는 대구의 전도 그 어찌나 될까.”⁵⁵라는 식으로 그는 대구인의 삶과 미래에 대해 걱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차원의 걱정은 그가 전달하는 대구의 산업 상황이나 자치 단체의 활동에 의해 해소된다. 물론 그가 이를 직접 연결하여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는 답사기가 놓인 구조로부터 추정할 것이다. 일련의 대구 답사기를

54 「경북잡관(제4신)」, 『신민』 16(1926. 8), 63쪽.

55 「영남답사기」, 『신민』 37(1928. 5), 62쪽.

통해 그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일본 제국의 힘-일본인이 경영하는 산업체, 일본의 정책이 이끌어가는 자치단체 등에 의한 발전의 낙관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에 대한 그의 연민은 결국 일제의 힘 속으로 용해되어 사라진다. 실제 그가 만난 자치단체의 임원들이 전하는 말 속에서 그의 걱정은 모습을 감춘다. 1929년 답사에서 대구의 극심했던 가뭄을 염려하자 곡물상 조합이사는 그에게 당국의 사업 정책을 들어 설명하면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다.⁵⁶ 그가 전하는 답변 속에서 조선에 대한 연민도 비판도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류순근은 조선(인)에 대해 감상적 비판과 구조적 낙관의 복합적 감정과 태도를 표출한다. 조선에 대한 연민을 주조로 한 감상적 비판은 조선에 대한 긍정과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개인 감정 차원의 비판과 연민은 결국 제국 지향의 낙관적 전망 속에서 힘을 잃기 때문이다.

예천의 철도 공사를 바라볼 때와 철도가 개통된 문경을 분석할 때의 상반된 태도는 다양한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예천 떠나 문경점촌에

자동차에 몸을 던져 내가 예천을 떠난 때는 5월12일 오전 십일시였다. 좌우에 보이는 푸른 산로 보잘 것 없는 농촌 우리 사람의 茅屋 수천수백명의 역군들이 모여 땀 흘리며 토역하는 경북철도의 공사 얼마 안 가서 저네 사람들의 발자취가 심하여 질 것을 생각하여 어쩐지 감구지회뿐만 아니라 울적한 마음이 솟아오름을 금할 길이 없었다. 시간만에 점촌에 내리니 때가 정오를 넘어 십오분이다.

문경 군청 후보지 점촌

수년전까지도 적적하기 비할 수 없던 일백촌 문경군 점촌 이 곳이 물밀

56 「영남답사기」, 『신민』 45(1929. 1), 156쪽.

뜻 들어오는 신문화에 경북선이 개통된 후 일익 진전을 하여 금일과 여한 시가를 형성케 됨은 속담에 이른 말과 같이 상진벽해 여기를 두고 이름같다. 가두 좌우에 준비한 상점들뿐만 아니라 회사관공립 없는 것도 별로 없고 객의 편리를 돕고자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여관 음식점 요리옥도 상당히 많다. 불과 수년만에 신설된 이 곳 매우 급속히 전개된 감이 있다. 당지 서북간 오지로서 물가가 집산됨에 점차 상업지로 번영케 되리라는 논평과 경북선이 차차 예천 이북 이동으로 개통케 되자 중간역이 될 것을 우려하여 현금 이상 발전될 여망이 없다는 논자도 있어 참으로 촉망 중에 있는 바 신뢰할 만한 대구 모씨의 일설을 거하고 보면 문경점촌은 오지에 무진장인 재목의 산출과 방금 채굴에 있는 일억톤 이상의 양을 유한 문경군의 무연탄광 총복으로 통하는 자유스러운 교통 편리에 미루어보아 결코 전개되면 되었지 지금 이상 발전의 반대되는 쇠퇴는 추호도 없으리라 한다.⁵⁷

류순근은 예천에서 진행되는 철도공사를 보면서 “얼마 안 가서 저네 사람들의 발자취가 심하여 질 것을 생각”하니 “울직한 마음이 솟아오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적었다. 저네 사람은 곧 일본인이다. 하지만 곧이어 들른 점촌 편에서는 경북선 개통이 교통 편리를 통해 발전을 가져올 것임을 확신하는 자의 전언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이는 일본 행정에 대한 긍정이요 그에 따른 조선 발전에 대한 낙관이다. 이후의 「호남답사기」에서도 이러한 예는 쉽게 발견된다. 그는 두 번째 들른 영암에서 “작년 춘절에 와서 볼 때는 볼 만한 집 한 채가 없어 적적삭막하여 사람 못 살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평평한 도로, 신축 가옥과 군청사 등을 보건대 “수년 후에는” “손색이 무할 만한 문화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희망적 어조와 낙관적 전망으로 글을 맺는다.⁵⁸ 부산과 통영 등에서 보이는 조선의 처지에 대한 비판

57 류순근, 「남선답사기」, 『신민』 37(1928. 6), 101-102쪽.

58 「호남답사기-칠백리 장관」, 『신민』 43(1928. 11), 145쪽.

또한 일제의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신뢰와 낙관론 속으로 흡수된다. 그네와 저네를 나누면서 조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듯하지만 결국 그의 논리는 구조의 차원에서는 제국의 논리를 전적으로 수긍한다. 그의 위치는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제도와 담론” 내에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전형적인 내부주체의 의식과 태도를 보여준다.⁵⁹

IV. 성공담의 도덕률과 노동하는 식민 주체

『신민』의 지방 기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성공한 개인과 이상적 지방 소개이다. 이는 『신민』의 개선론에서 강조한 덕목을 갖춘 개인 혹은 공동체이다. 이각종의 「신흥민족의 초발심」에서는 ‘극기’가 강조되는데, 이에 따르면 삶은 전적으로 개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 노력은 아직 빈약하다」, 「나의 노력주의관」(이상 1925. 5)이나 「오호, 자각자」(1925. 7), 「청년아 각성하라」, 「자기완성 노력하자」, 「자신을 돌아보라」(이상 1925. 9), 「努力的 힘」(1926. 7), 「自己省察」(1926. 8), 「反省과決心」(1927. 1), 「自我를 먼저 알아라」, 「굳센 意志力를 가지라」, 「一躍大成을 꿈꾸지마라」, 「忍耐力을 把持하라」(이상 1929. 1) 등 이후 개선론 기사의 일관된 논조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경우 이는 단체의 자치 능력이 된다.

59 내부주체(domestic subject)는 스피박(가야트리 스피박 저, 태혜숙 역, 『다른 세상에서』(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8))이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제도와 담론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길들여진 유럽인’을 지칭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메리 루이스 프랫(메리 루이스 프랫, 김남혁 역,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횡단』(현실문화, 2015), 24쪽)은 유럽인의 라틴 아메리카 여행기와 답사기 분석에 이 개념을 적용하였다. 프랫에 따르면 “여행 서적은 제국의 ‘내부 주체’를 생산하는 주요 장치”이다.

이에 대한 소개는 잡지 초기에는 개별 기사 형식을 취하다가 점차 답사기를 포함한 지방 순회 기획 기사에 포함되어 다루어졌다.

먼저 개별 기사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업저축 농촌 일척년의 성공실화」, 『신민』, 1925. 9.
- 「머슴[습]의 赤手成家」, 『신민』, 1925. 10.
- 류생, 「인천인물산평」, 『신민』, 1925. 11.
- 「지방자선가소개, 해주 유순益씨」, 『신민』, 1925. 11.
- 「인물소개」, 송병준, 『신민』, 1926. 6.
- 류전, 「사업성공실화, 금일에 이르기까지(일)」, 『신민』, 1927. 2.
- 崔奎東(최규동), 「今日에 이르기까지(이)」, 『신민』, 1927. 3.
- 韓相龍(한상룡, 한성은행), 「今日에 이르기까지」, 『신민』, 1927. 4.
- 金季洙(김년수, 경성방직주식회사 전무), 「今日에 이르기까지」, 『신민』, 1927. 5.
- 朴興植(박흥식), 「今日에 이르기까지」, 『신민』, 1927. 6.
- 「고금 성공자의 신원조사」, 『신민』, 1927. 7.
- 「서철의 성공훈」, 『신민』, 1927. 9.
- 「출세미담 영국의 대재상 막트날트의 성공담」, 『신민』, 1927. 9.

위 기사는 내용상 경제적 성공 실화, 고금 혹은 외국의 성공 사례 등의 성공담과 자선담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선담 또한 성공담의 한 예이다. 이러한 인물 소개는 실제 지역 답사기-지방 기자의 지방 순회기, 지주 탐사/순방/방문기 및 류순근의 답사기-에서는 양적으로 더욱 확대되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류순근의 글에는 모범적인 지역 관료가 더 추가된다.

소개되는 인물은 『신민』의 개성론에서 강조했던 극기, 인내, 노력, 근검 절약 등의 자질을 갖춘 자이다. 일례로 「부업저축 농촌 일척년의 성공

실화」의 내용을 살펴보자.

『천하능공력적가』 이것은 진리인가. 망설인가. 아무리 힘을 써도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이 세상에는 힘만 드리면 잘 살게되는 사람도 있다. 경상남도 함안군 파수리 사는 강문호라는 당 년 이십오세의 한 청년. 그 집은 극빈농이었음으로 경작을 함에도 인가의 소(牛)를 빌어 사역하고 있었다. 물론 그 품앗이로는 그의 부친이 소 임자의 집에 가서 노동을 하여주었다. 그러므로 양친은 耕牛가 없는 것이 여간 서름이 아니었다. 그때 문호는 십세의 아동이였지마는 양친의 탄성을 들은 그는 크게 분발하여 어떻게 하면 경우를 얻을가 하는 생각으로 어린 가슴을 태워가며 그때부터 자기 힘 미치는 노동은 무엇이라도 해보겠다고 결심하였다. 그 때 마침 좋은 병아리 다섯을 얻어다가 기른지 칠개월 후에는 커다란 닭이 되어 알을 낳게 되었다. 그는 매일 낳는 알을 모아서 먹지 않고 팔았다. 이 돈이야말로 어린 문호군의 땀과 기름의 결정이다. 일찬 반분인들 낭비할가 보나 꼭꼭 저금을 하였더니 육개월 후에는 이십원이란 큰 돈이 되었다. 그 돈으로 아주 얇전한 송아지 한 마리를 샀다. 온 집안의 기쁨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문호는 더욱 송아지 거두기와 양계하기에 부절분투한 결과 이년 후에는 저금 총액이 실로 수백원이란 대금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송아지도 경작에 사역할 큰 소가 되었다. 그는 그 돈으로 자기 소작하던 전답을 사고 또 그 소출로 산림도 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마니짜기 전시 만들기 양잠하기에 여러 가지로 면려한지 십오 년 동안에 문호군은 지금 오십 두락의 전답과 십여 정보의 산림을 가진 대농가로 일가의 평화번영은 날로 더하여간다고 한다.⁶⁰

위 기사는 경상남도 함안군 극빈농 출신의 25세 청년의 자수성가기이다. 여기에서는 농촌의 일 청년인 강문호가 가난한 농가에 태어나서 얼마나

60 「부업저축 농촌 일청년의 성공 실화」, 『신민』 5(1925. 9), 85쪽.

노력하고 근검절약하고 저축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했는가를 강조하여 보여 준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다는 세간의 말은 옳지 않다. 자신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식이다 이는 개선론에서 강조했던 논리이다.

또 다른 인물 소개의 유형은 자선담이다. 이는 자수성가한 이의 구체적 활동기이기도 하다. 『신민』에서 자선은 근검절약, 저축의 미덕을 갖춘 자의 다음 행보로서 강조되는 덕목이다. 「지방자선가소개, 해주 유순익씨」 편에서 “일찍 근검절약에 자수성가하여 전혀 가업융창에 력을 진하여 수만의 부를 성하였던 바 시대의 변천은 독히 유산자의 단독향락으로만 만족치 못할 풍조를 이해하고 적이능산의 필요를 통감하여 씨는 작동에 가재를 거하여 지방공익사업에 제공하기로 결심하였다.”⁶¹와 같이 성공한 이가 다음으로 갖추는 미덕이 지방공익사업에의 기부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도서관 건립 기금, 공민 구제금, 소방기구매입비 기부 등이다. 이처럼 자선 행위는 부호의 미덕으로 칭송되었는데,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안성 부호 비판이 하나의 예이다. 지방순회기의 첫 번째 편인 안성소개 기사에는 생색만 내고 기부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안성 부호를 비판한다. 또 기자는 안성에 도착하여 어떤 매체에서 실린 ‘안성지방 소개관’을 보고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았는데, 농업개량가로 이름이 높은 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공익사업에”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에 기자는 안성 지방 인물을 직접 조사하여 새롭게 작성한 명단을 소개하게 되었노라면서 기사 내용을 설명하였다.⁶² 류순근의 첫 번째 답사기에서도 자선가는 소개해야 할 중요 대상이다. 그가 소개한 인물은 공주 부호 김윤환인데, 소개에

61 「지방자선가소개, 해주 유순익씨」, 『신민』 7(1925. 11), 123쪽.

62 윤명진, 「지방순회기(일)-안성 소개」, 『신민』 33(1928. 1), 80-82쪽.

따르면 이 부호도 빈민구제뿐 아니라 공주보통교 창립을 비롯한 기부 등 공익 기부 행위에도 적극적이었다.⁶³

다음으로 『신민』의 이상적 지방 소개기를 살펴보자. 류순근은 1928년과 29년 각각 두 편의 「영남답사기」와 「호남답사기」에서 이상촌, 모범부락 혹은 모범촌락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도군의 이상촌(「영남답사기」, 1928. 5), ‘모범부락 도림리’와 ‘모범촌락 사신기리’(「호남답사기」, 1928. 11), 경북의 모범부락-고령군 성산면 무계동, 경산군 압양면 조영동, 선산군 산동명 봉산동, 청도군 화양면 소라동, 영천군 금호면 신월동, 경주군 양남면(「영남답사기」, 1929. 1), ‘이리 근처의 농장’, ‘광주 모범부락촌 낙두암리’, ‘봉안리 진흥회’, ‘월본리’(「호남답사기」, 1929. 8)이다.

해남군 산이면 금호도의 예를 통해 이상촌의 삶을 살펴보자.

세태가 한번 달라진 후 조선사회는 어느 곳을 가든지 대부분 동족이 의식주 문제 이것을 해결할 도리가 무하여 남부여대로 도로에 방황을 하며 혹은 북만주 한야 서백리아 불모지지로 향하여 의식을 구교자 길을 떠나기 참상이 형언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만 홀로 받는 빈민이 없을 수 업슨 이러한 중에도 남에게 잃었던 땅을 다시 찾고 의종게 자미스럽게 이상적 생활을 해가는 곳이 있다. 이곳은 금호도라는 섬으로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에 소속된 일고도인데 [...] 도민 중에도 그 중 유력한 박치성씨 해남군 당국에 참황을 진술하고 군당국의 어떠한 지도가 있기를 바란다는 여기에 상응이 되어 금호도의 진흥책으로 면작부업을 독특히 장려케 되었다. 재래식을 취지 않고 군당국으로 지시하는 개량법에 의하여 도민 전체가 결심하고 개량경작품 질향상에 노력하며 근검역행 위주로 하니 날이 가고 달이 지낼수록 이곳에는

63 류순근, 「남해잡관 제일신」, 『신민』 7(1925. 11), 92쪽.

차차로 면화판매한 수입액이 몇 배로 증가케 되며 惡衣惡食하며 문분전전이 집적에만 힘을 쓰게 되어 해노력을 수년지간에 황금과 바꾸게 되며 몇 해 전에 매도하였던 토지를 도민의 소유지로 다시 사도록 운동하자는 소리가 높게 되자 목포복전중무주식회사 기타 몇몇 군데의 토지를 대정 십일년경부터 차차로 사들이니 기간 도민공동저금으로 인하여 동매한 땅이 오십오정어보며 해가격이 이만원여에 달한다. 팔았던 토지를 이와 같이 도로 사들이게 된 것이야말로 자랑할 만한 일이다. 현해남군수 안승춘씨와 飛浦 목포 부윤의 노도 사함에 죽한 바 있다 한다. 지금 동도에는 해남군 황산면 우곡리 이재량씨의 소유지 일백팔십두락을 제하고는 전부 도민의 소유지로 되어 이의 백팔십 두락조차 마저 사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전국에서 다시 없는 儉約勤勉 농민만 사는 전도 유망지이다. ①동도의 금일에 행하고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농민 칠백여명으로 민풍진흥회를 조직하여 농사개량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춘추우기에 미맥 등속으로 일치적 공동저금을 하는 것이며 보통학교 사학년 정도를 표준하여 도민육영사업을 목적하고 금성학원을 설립하여 연년 일천여 원의 경비를 이의없이 각자 부담하는 것 경중을 일일 삼차를 이어 시간관념을 고취하며 공동적으로 일을 하며 쉬는 이것 남녀가 구별없이 산에 오르고 들에 나아가 노작을 하는 것 민풍진흥회에서 삼정보의 공동민유지에다가 축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양잠조합을 조직하여 동도 특산품으로 많은 생산에 노력 중인 이것이며 신문잡지 같은 것을 구독하여 상식을 함양하는 것 등이다.⁶⁴

금호도 주민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방황하고 흩어지는 조선 동족과 달리 “의 좋게 재미스럽게 이상적 생활”을 한다.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검약근면 농민만 사는 전도 유망지”인 금호도 농민의 삶은 제국이 만들어놓은 유토피아 아니 헤테로토피아이다. ①에서 밑줄 친 부분

64 『호남답사기-칠백리 잡관』, 『신민』 43(1928. 11), 148-149쪽.

을 통해서는 제국이 꿈꾸는 유토피아 속 식민지인의 생활상이 그려진다. 이들은 민풍진흥회를 조직하여 다방면에서 농사 개량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저금하고 경비를 부담하고, 보통학교 사학년 정도의 적당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매일 3회에 걸친 종소리를 통한 시간관념을 고취하고, 남녀는 구분 없이 근면성실을 통해 노동력을 발휘하고, 생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지식 함양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는 군당국이 총독부에서 제시한 지방개량법을 충실히 따른 결과이다. 이 글의 소재명은 '농민의 근검절약이다. 지방개량의 전제로 강조된 도덕 규범은 결국 총독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논리임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촌'이라는 용어는 『신민』이 자주 쓴 표현이다. 『신민』 1929년 3월호의 제호는 '이상촌건설호'이다. 이는 13도 26단체의 소개를 중심으로 한 권의 잡지를 엮은 특별호이다. 경기도의 부천군 부민회와 오성면 부인회, 충청북도의 연수동 교풍회와 이남면 장찬리와 같은 식으로 각 도별로 두 개의 단체 -자치단체 혹은 부락-를 소개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26개 가운데 19개가 1927년 총독부로부터 모범부락 보조금을 받은 단체이다.⁶⁵ 이는 모범부락이라는 이름의 이상촌이 총독부에 의해 통제되고 종속된 관계임을 말해준다. 『신민』은 1929년 5월에도 류광렬의 「이상촌건설기」에 지면을 크게 할애한다. 이에 대해 필자 류광렬은 "신민사에서 이상촌건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라 한다. 현재 우리의 처지로 이상촌 건설이 몽중몽인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굳이 쓰라 하기로 塞責삼아 쓴 것이다. 독자 중에는 이 이상촌이라는 말만 보아도 격노할 분이 있을 줄 나는 잘 안다."⁶⁶라

65 총독부 모범부락 보조금 지급상황은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中篇, 228-293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를 정리한 김익한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김익한, 「192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정책과 그 성격: 면행정제도와 '모범부락'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3(1996), 166-167쪽.

66 류광렬, 「이상촌건설기」, 『신민』 49(1929. 5), 120쪽.

를 머릿글을 통해 ‘이상촌’이라는 용어 사용의 불편함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류광렬은 신민사의 요구에 충실히 따랐다. 실제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자는 벽상생이라는 이름의 필자이다. 그는 피폐한 농촌의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촌의 환상 창출에 동원되는 도덕 자질을 문제삼았다. 이는 《동아일보》에서 1929년부터 연재한 「전조선 모범농촌 조사」에서 강조된 근검저축의 찬미에 대한 비판이었다. 필자는 조선인에게 근검저축을 요구하는 행위가 “의식적으로 하였다면 너무나 악의의 해석같이” 보이기예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겠는데 그럴지라도 기자와 편집자의 두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기아선상에 해매는 조선대중에게 근검을 고조함이 얼마나 동키호테식이나”⁶⁷ 라면서 근검저축 찬미의 비현실성 나아가 악의성을 비판하였다.

류순근의 답사기에는 『영남답사기』라는 제목의 글이 세 편 있는데, 세 편에서 모두 청도 소라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소라동은 그의 글뿐 아니라 《동아일보》에도 소개되었다.⁶⁸ 다음 소라동의 예를 통해 ‘이상’촌이라는 이름 아래 치하되는 덕목이 궁극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자.

동 촌락이야말로 전일 필자가 군당국원과 같이 실지에 이르러 생활상태도 보고 그곳에서 행하여 오는 것을 알아도 보았으니 더 의심할 여지가 무한 실로 아름다운 촌락이다. [...] 동민이 융합하여 근면 일관을 토대로 선각자인 박성목씨 선도하게 부인회가 된다 농사개량조합이 설치된다 하여 기간 실행한 미거가 한 두가지 아니니 이것을 도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 곳의 촌민들은 제일히 가족적 관념으로 쟁투란 것은 잇는 곳을 가르쳐

67 壁上生, 「동아·조선·매일 삼신문월평」, 『해성』 8(1931. 11), 32쪽.

68 「清道の 理想村, 所羅洞의 訪問記」, 《동아일보》, 1928년 7월 2일자.

직방을 하여 어떠한 대소사일지라도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여 쟁송이라는 것이 없는 것도 회한하며 군이나 면에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자 기차 타러가는 때와 같이 시각을 다투어 얼른 완납하는 것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산에 오르며 들에 나아가 최신식으로 농작에 종사하여 근검을 위주로 절약절식하는 것이며 생산품이나 소비품 구입판매를 공동적으로 하여 이익과 편의를 취하는 것이며 노동야학을 견실하게 독려면행하여 육영에 힘을 쓰는 것이며 신문이나 잡지 기타 필요한 서적을 강독하여 농적 지식을 함양하며 때때로 농사시찰단을 조직하여 가지고 성적이 양호한 곳에 주장하여 연구를 게을리 안 하는 것 등 事이다.⁶⁹

류순근이 처음 소라동을 방문한 것은 1928년이다. 이 때는 지역 군수와 함께 소라동을 방문했으며 소라동의 농사개량조합 임시총회 참석이 주목적이었다. 이 시기 이미 소라동은 총독부에서 권장하는 자치단체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모범동리로 알려졌다. 28년 5월 『영남답사기』에 비해 다음 해 1월 『영남답사기』의 소라동 기술은 더 구체적이고도 풍부하다. 위 예문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면장 박성목을 중심으로 부인회와 농사개량조합 등 자치단체 활동을 충실히 하고 생활에서는 근검절약하고 생산활동에서는 근면성실하며 이를 위한 배움에도 부지런하고 납세 의무도 완벽하게 수행한다. 여기에서 『신민』 개선론에서 강조된 극기, 인내 및 노력과 ‘생활개선실행회’의 지침이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다. 즉 총독부 지방 개량 정책 사업에 대한 충실한 수행은 궁극적으로 제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이상촌의 조선인은 극기와 인내, 노력 및 근검절약과 근면성실을 갖춘 노동하는 착실한 식민 주체로 구조된다.

69 「영남답사기」, 『신민』 45(1929. 1), 157-158쪽.

V. 맺음말

『신민』은 ‘지방부’를 별도로 두고 1925년 5월 창간 당시부터 193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 조선 지역 조사 및 답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게재하였다. 지금까지 이 자료들 ‘지방 방랑의 자취’, ‘지방 개량의 실적’, 지역 잡관 및 답사기, 기행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본 논문에서 살핀 『신민』(1925. 5-1933. 4)의 지방 관련 기사-지방 개량 실적 보고기 및 답사기-는 일제의 조선 행정 및 문화 정치와 관련됨으로써 일제 문화 정치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는 『신민』의 지방 관련 기사의 의미 양상을 살펴 근대 초기부터 이루어진 제국적 관점의 식민지 답사 혹은 여행이 민족지적 현지조사를 넘어 어떻게 식민적 도덕률의 창출로 변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 답사(기)가 조선인 및 조선 사회 개조론과 어떻게 관련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식민지 개인의 도덕적 규범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하는지를 살폈다.

구체적 고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신민』 지방개량사업의 명분에 해당하는 개조론을 먼저 살폈다. 이어 개조론을 체화하고 수행한 결과물인 지방 관련 기사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았다. 당시 농촌 정책을 담당했던 총독부내무국 사회과에서 발행한 문서와 『신민』의 지방 사업 기사의 서술 형식의 비교를 통해 후자가 전자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받아쓰기는 탈식민주의 글쓰기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되받아쓰기 혹은 다시쓰기(Writing Back)와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신민』은 ‘생계’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회 개선론을 주장했지만 관점은 총독부 즉 제국의 논리틀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식민지인의 생활 통제를 위해 동원된 도덕 규범

및 논리이다. 여기에서 ‘도덕’은 보편 가치의 외피를 두른, 은폐된 정치 논리이자 식민지 수탈을 합리화하는 정치적 기제로 작동한다. 지방개량운동은 지방 행정뿐 아니라 식민지인의 정신 재편을 목적으로 한 제국의 정책이다. 『신민』의 지방 관련 기사는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인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강조되는 도덕률은 노동하는 식민주체의 정립 논리이다. 이러한 일련의 고찰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제국이 식민 지배를 위해 문화 정치 전략으로서 식민 모럴을 창출하는 하나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개벽』, 『신민』.

《매일신보》, 《부산일보》, 《중외일보》.

『우량부락조』. 조선총독부내무국사회과, 1928. 3.

『우량부락사적』. 조선총독부내무국사회과, 1930. 9.

『우량부락及단체』. 『조선사회사업』4, 조선사회사업협회, 1924.

『우량부락及단체』. 『조선사회사업』4, 조선사회사업협회, 1926.

『우량부락と독농가』 제1집. 조선농회, 1931. 3.

2. 단행본

김성우, 『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가야트리 스피박 저, 태혜숙 역, 『다른 세상에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8.

메리 루이스 프랫 저, 김남혁 역,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횡단』. 현실문화, 2015.

3. 논문

권채린, 「잡지 『신민』에 재현된 사회주의 담론의 양상과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121-150쪽.

김민철, 『조선총독부의 촌락지배와 촌락사회의 대응: 1930-1940년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207쪽.

김익한, 「192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정책과 그 성격: 면행정제도와 '모범부락'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3, 한국사연구회, 1996, 147-176쪽.

김은주, 「1930년대 조선의 농촌 생활개선사업과 '국민화' 작업」. 『한국사론』 58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2, 147-214쪽.

김종식, 「근대일본 청년단체정책의 형성과정」. 『동양사학연구』 82, 동양사학회, 2003, 115-143쪽.

_____, 「공민교육을 통한 근대 일본 국민상의 모색」. 『동양사학연구』 114, 동양사학회, 2011, 225-258쪽.

윤정원, 「한국 근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1889-1945」. 이화여자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1-191쪽.
- 이경돈, 「신민(新民)의 신민(臣民): 식민지의 여론시대와 관제 매체」. 『상허학보』 32, 상허학회, 2011, 272-311쪽.
- 이하나, 「일제강점기 '모범부락' 정책과 조선농촌의 재편」. 『학림』 19집,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1998, 123-180쪽.
- 정근식·최경희,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103-169쪽.
- 정상호, 「동아시아 공민(公民) 개념의 비교 연구」. 『동북아연구』 27(1),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연구소, 2012, 5-38쪽.
- 정승진, 「근대동아시아 규율권력의 지방침투와 제국의 관변단체: 일본의 지방개발운동(1900-1918)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275-336쪽.
- 차조일, 「번역어 '공민'과 사회과 교육」. 『시민교육연구』 50(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8, 221-246쪽.
-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69-105쪽.
- 伊勢弘志, 「「地方改良運動」の政策主体と社会背景」. 『文学研究論集』 第30号, 明治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2009, pp. 165-182.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살핀 『新民』(1925. 5-1933. 4)의 지방 관련 기사-지방개량 실적 보고기 및 답사기-는 일제의 조선 행정 및 문화 정치와 관련됨으로써 일제 문화 정치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구체적 고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新民』 지방개량사업의 명분에 해당하는 개조론을 먼저 살폈다. 이어 개조론을 체화하고 수행한 결과물인 지방 관련 기사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았다. 당시 농촌 정책을 담당했던 총독부내무국 사회과에서 발행한 문서와 『新民』의 지방 사업 기사의 서술 형식의 비교를 통해 후자가 전자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음은 확인했다. 이러한 받아쓰기는 탈식민주의 글쓰기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되받아쓰기 혹은 다시쓰기(Writing Back)와 정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新民』은 '생계'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회 개선론을 주장했지만 관점은 총독부 즉 제국의 논리틀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식민지인의 생활 통제를 위해 동원된 도덕 규범 및 논리이다. 여기에서 '도덕'은 보편 가치의 외피를 두른, 은폐된 정치 논리이자 식민지 수탈을 합리화하는 정치적 기제로 작동한다. 지방개량운동은 지방 행정뿐 아니라 식민지인의 정신 재편을 목적으로 한 제국의 정책이다. 『新民』의 지방 관련 기사는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인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강조되는 도덕률은 노동하는 식민주체의 정립 논리이다. 이러한 일련의 고찰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제국이 식민 지배를 위해 문화 정치 전략으로서 식민 모럴을 창출하는 하나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투고일 2019. 9. 24.

심사일 2019. 11. 12.

게재 확정일 2020. 2. 7.

주제어(keyword) 『新民』(*Sinmin*), 사회개조론(Social reconstruction), 생활개선론(The Life Improvement Project), 지방 답사(The Local field trip), 식민 모럴(Colonial Morals), 성공담(Success story), 기행문(Travel Essays), 문화정치(Cultural Policy), 우량부락(모범부락, Model Village) 내부주체(domestic subject)

Abstracts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Sinmin* and the Production of Colonial Morals

Woo, Mi-yeong

The Local Improvement Reports and Travel Essays featured in *Sinmin* (May 1925–April 1933) provide a glimpse into the realities of Japanese cultural politics. This paper first investigates the argument of social reconstruction, which served as the justification for the local improvement project of *Sinmin*. Next, it examines the narrative format of these articles, which can be seen as the end products embodying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reconstruction.

Analysis shows that the abovementioned articles in *Sinmin* appear virtually dictated by documents issued by the social affairs division of the internal bureau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hich was responsible for policies concerning rural villages at that time.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acts of rewriting or writing back as resistance against colonialism in decolonization writings. Such findings indicate that *Sinmin* was unable to overcome the framework po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ven as it argued for social reconstruction to solve issues related to livelihood.

Another issue this paper focuses on are the moral norms and logic mobilized to control the lives of the colonized. Disguised as universal values, these morals functioned as the hidden political logic and political mechanism rationalizing colonial exploitation. The Japanese empire's local improvement campaign aimed not only to reconstruct local administration but also the mentality of the colonized. Individuals pro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campaign were introduced by previously analyzed *Sinmin* articles. The ethical code emphasized in these articles worked as the logic to establish the laboring colonial subje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duction of colonial morals as a cultural politics strategy of the Japanese empire to control the colonized.

